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이 곧



韓中圭씨(56세, 전라북도 보건과 방역계장). 그는 56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다 싶을 만큼 젊고 건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생활의 기본은 가정의 건강과 화목입니다. 그것이 지역사회 건강과 발전의 바탕이 됩니다.』라는 그의 표현대로 그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항상 밝음 그 자체라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그가 방역관계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의 일이라고 한다.

『결핵관리요원으로 보건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일만도 여러가지입니다.

위생·의약·가족보건·환경보건·방역업무 등등. 그렇게 뛰다보니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라며 맑게 웃는다.

그는 그중에서도 특히, 81년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가장 안타까움도 많았고 일에 대한 애착도 많았다고 말한다.

『80년대 초 제가 환경보존업무를 담당했을 당시 일부 기업주들이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

## 지역사회의 건강과 발전입니다.”

전라북도 보건과 韓中圭 방역계장

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韓中圭씨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결코 기업주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주민 모두가 공해나 환경오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예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 중의 하나가 생활하수이고, 또 자동차 매연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라면서 그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는 또 건강관리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 검진 사업을 창안해낸 주역이기도 하다.

『60년대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있어서 심각했던 문제는 기생충감염, 전염병 등이었습니다. 이제 이 분야의 관리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성인병의 관리는 아직도 관심을 쏟아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영세민 성인병검진, 사업장 근로자 간염검사 등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건협외 건강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 퇴치 사업에서 보여준 그 노력이 앞으로도 건강관리사업에서도 변함없이 발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북도민 건강관리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면서 건협에 대한 격려로 잊지 않았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식과 긍정적인 사고가 기울어짐 없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어느 세대보다도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항상 “우리”라는 생각으로 살아야만 진정 국가의 발전,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면서 韓씨는 조국의 미래는 젊은이의 이러한 노력하는 자세에 달려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전주의 용덕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임귀병(54세)씨와의 사이에 중대무역학과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둔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테니스를 치는 등 규칙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범 공무원이다.